

OECD/DAC 빈곤감소네트워크(POVNET) 회의 결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빈곤감소네트워크(POVNET) 전체회의가 2009.10.21-22간 파리 OECD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POVNET 산하 2개 작업팀(이행 및 권능강화) 작업 및 관련 네트워크(GOVNET, GENDERNET)와의 협력작업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작업방향을 논의하였으며, DAC Reflection Exercise 결과 및 후속조치 진전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 회의에는 주OECD 대표부 및 KOICA, 여성정책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 보고하였다.

I. 2009-10 POVNET 작업계획 점검 및 향후 작업방향

1. Implementation 작업팀

그간 작성된 POVNET의 정책적 결과물(2001년 빈곤감소가이드라인, 2007년 Pro-Poor Growth 정책지침, 2009년 고용 및 사회적 보호 정책지침 등)을 이행하는데(operationalize)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아래 4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 ① MDGs : Pro-Poor Growth(PPG), 사회정책, 노동시장(고용), 권능강화 등 MDGs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간 도출된 POVNET의 작업결과를 보다 명확한 정책적 메시지로 진척시킴(carry forward).
- ② Peer Review : PPG를 DAC의 동료검토프로세스에 주류화하여 본부/현장레벨에서의 실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 ③ Country Workshop : POVNET의 정책적 결과물을 수원국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07년 이후 중단된 수원국내 개최 워크숍을 재개하고, Train4Dev Network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④ POVNET Blog : 광범위한 참여자간에 논의 활성화를 위해 POVNET Blog를 설치하여 운영함.

작업방식은 POVNET 부의장이 조정자역할을 하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는 작업팀을 중심으로 작업을 수행함.

2. Empowerment 작업팀

빈곤층의 권능강화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작업팀의 일련의 작업현황(권능강화에 대한 사례(stories)조사, 모범관행 및 정책지침 Notes 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작업추진시 주안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권능강화프로세스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사회 및 빈곤층을 포함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모든 계층의 권능강화 필요성, 정보 및 지식 공유 확대, 분야별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적 접근법(territorial approach) 모색 필요성 등이 제기됨.

3. GOVNET/GENDERNET과의 수평적 협력작업

인권과 PPG간의 개념적·실행적 상관관계에 대한 사무국의 작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동 문서를 기초로 POVNET-GOVNET간 공동작업을 추진하기로 하며, GENDERNET과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농업, 식량안보 등 공동작업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로 함.

II. 2011-12 DAC 작업계획에 대한 POVNET의 기여 방안

DAC Reflection Exercise 및 10.19 개최되었던 DAC 정책국장회의 결과를 기초로 ① 식량안보, ② Green Pro-Poor Growth, ③ 사회정책 및 사회적 보호의 3가지 분야(향후 추가 가능)에서 POVNET이 향후 DAC 작업에 기여하기로 함.

III. 관찰 및 건의 사항

Pro-Poor Growth를 통한 빈곤감소 성과 달성을 지향하는 POVNET은 당분간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분석작업 보다는 그간 이룩한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임. 특히, 글로벌 공공재, 갈등 및 취약상황 등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대두하면서 그간 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로 중시되어왔던 빈곤감소 이슈가 여타 이슈들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그 visibility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감소에 대한 DAC의 기존 정책적 가이드라인들이 다소 추상적·이론적인 성격이 짙었고, 규범적(normative)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개발협력사업 practitioners들이 사업을 입안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 지침들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임.

DAC 가입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타 분야 DAC 가이드라인과 함께 빈곤감소 분야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는 바, POVNET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 지침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operationalize) 작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봄.

향후 POVNET의 기여가능 분야로 제시된 “Green Pro-Poor Growth”는 (금번 회의에서 상세히 논의되지 않아 향후 보다 구체적인 개념정립이 필요하나)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모델로 발전되고 있는 Green Growth 모델을 빈곤감소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modify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는 바, 동 개념의 정책적 유용성, 우리의 기여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